

KBS미니시리즈

구르미 그린 달빛

기획안

제작 KBS 미디어

I . 드라마 개요

제목	구르미 그린 달빛
형식	TV미니시리즈 드라마 (70분 X 20부작)
장르	청춘 로맨스 사극
원작	윤이수作 소설 <구르미 그린 달빛>
연출	김성윤
극본	김민정 임예진
제작	KBS미디어

II. 기획의도

가. 한 순간도 밀당의 끈을 놓지 않는, 요망한 로맨스!

라떼보다 달달하다. 한 여름 소나기 보다 청량하다.
하지만 푹푹하고 상큼하다고 덥석 베어 물었다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맵고 쓰린, 청춘!!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고, 한 가지로 그 맛을 표현하기엔 불가능한 이름
하여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건 청춘 로맨스가 아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로맨스의 향방,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짜릿한 러브 스토리
각기 다른 매력의 세 남자와 수상한 그녀 라온의
심쿵 로맨스가 펼쳐진다!

나. 선택이 불가능한 4지선다, 용호상박 (龍虎相搏) 캐릭터 열전!

궁으로 간 여인!
그러나 왕의 여자 궁녀가 아닌
왕의 남자 내시다!

궁중 최고 날라리!
하지만 쇠락해 가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
천재 군주다!

까칠 도도한 귀공자!
그러나 운명적 사랑 앞에
속수무책 순정남!!

조선 제일의 검객!
알고 보면 비밀을 간직한
방랑 시인!!

나무 아래 서있기만 해도 한 폭의 그림이 되고
눈 한번만 찡긋해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꽃도령 4인방의 심장어택이 지금 시작된다!

다. 조선판 ‘미생’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궁궐 이야기!

사극마다 빠짐없이 등장해 하이톤의 목소리로 ‘상감마마 납시오!’만
외치다 사라지는 내시는 잊어라!
500년의 조선왕조를 지탱한 것은 왕이요,
왕을 지탱한 것은 바로 내관이니!
우아하고 품위 넘치는 왕족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왕께 올리는 음식을 감독하는 감선(監膳), 왕명을 전달하는 전명(傳命)
문을 지키는 수문(守門), 청소를 담당하는 소제(掃除)
왕의 정신 건강을 위해 개그를 담당하는 웃음내시까지.
조직적이고 세분화된 내관들의 세계!

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왕은, 잔소리 많은 사장님이요,
싸가지 없는 세자는, 금 수저를 문 새파란 실장님이요,
간만에 찾아 온 휴무에 꼭 등산가자고 하는, 비호감 부장도 있다.
출근이 싫고, 칼퇴를 기다리며,
막걸리 한 사발에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버리는
현대의 셀러리맨과 다를 바 없는 직업인으로서의 내시를
기발한 패러디와 해학으로 새롭게 조명한다.

라. 2016년 지금, 왜 효명인가?

숙종 이후 무려 150년 만에 왕후의 몸에서 태어난, 적통왕자!
조선 23대 임금 순조의 유일무이한 아들!
격랑의 19세기 조선, 모두가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지만
21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세자, 효명!

대리청정을 하던 3년의 시간,
그는 예술을 사랑한 낭만군주였고,
백성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열린 군주이자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 군주였다.

2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현재 우리가 바라는 리더의 모습과 꼭 닮아 있는 효명세자를 모티브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2016년 대한민국의 희망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Ⅲ. 등장인물

■ 이영 (남, 19세)

총명하고 아름다운 왕세자! 쇠락해가는 조선의 마지막 희망!

.....였었더랬다. 분명. 몇 년 전까지는.

어려서부터 천진함과 냉철함을 두루 지녀 일찍이 왕세자에 책봉 되었다.
말 트이기 무섭게 학문을 즐기 여겼고, 호기심이 많아 위험한 일에 몸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린 나인의 볼멘소리까지 경청할 정도의
겸손함을 지닌 준비 된 왕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가 변했다. 언제부턴가.

의관은 혈령이요, 행실은 덜렁이요, 학문엔 설렁설렁 임하는 날라리.
자신의 잘못은 관대하게 조용히 덮고, 타인의 먼지만한 실수는
태산처럼 확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는 자가 요즘의 영이다.
혹시 그 과정에서, 누군가 영의 처사에 못마땅한 기색이라도 내보일라치면
“완벽한 자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허물이 아니라 매력이니라.”
하며 제 안에 여백의 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호탕하게 웃다가,
“세자 앞이라고 어려워 말고 농을 하면 그냥 웃거라!
어찌 이리도 눈치가 없단 말인가!”하며 또 금세 호통을 치는,
자아도취. 예측불가. 시한폭탄.

뿐인가. 시강원 조강 시간에는 모자란 아침잠을 졸고,
주강 시간에는 서책 귀통이에 춤추는 여령의 그림을 조악하게 그려놓는가
하면, 스승의 질문에 대답대신 저잣거리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영의 모습에
대신들은 쫓쫓 혀를 차며 조롱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세자가 영화당 북쪽 독서처 옆에 작게 지어놓은 별당 기오헌에서 시강원
스승들의 계획보다 훨씬 앞서 각종 서책들을 독파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병연을 데리고 인적이 끊긴 자선당에 들어 검과 활, 말 타기 훈련에 매진해
이미 최고의 명사수로 성장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왕과 세자를 견제하는 외척세력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자신과 조선의 미래를 준비해 오던 젊은 군주.
하지만 열아홉 뜨거운 청춘인 영의 가슴이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재능도 없는 난제에 턱 부딪히게 되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수백 궁녀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녀들은 이미 세자의 것,
거절당할 일이 없기에 잘 보일 이유도, 궁금할 이유도 없었다.

헌데, 그, 삼놈이라는 이름의 내관!
명은 공주를 희롱한 건방진 사기꾼 놈을 응징코자 마음먹고
옆에 두라 명했을 뿐인데, 점점 그의 농담이 영을 웃게 하고,
그의 조곤조곤한 이야기가 불면의 밤에 꿀잠이 들게 해주었다.
구박하고, 괴롭히고, 면박을 줘도 지지 않고 씩씩한 녀석이 귀여웠고
힘들 때, 슬플 때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 위로를 건네는 게 고마웠다.

하여 뭐라도 주고 싶고, 아프면 챙겨주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말이 영 곱게 나가질 않는다.
“나에게 고뿔을 옮겼다간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알겠느냐?”
감기로 골골하는 라온에게 주고 싶었던 귀한 환은 이렇게
입에 우악스레 밀어 넣는 방법으로밖에 전해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뿔에 걸린 저 녀석이 아니라 나다 나!
그런 혼잣말이라도 해야 덜 부끄러웠다.
그러다 라온이 다른이와 함께 있고, 웃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괴롭기 시작했다.

내가, 이영이, 이 나라의 왕세자가, 같은 사내를... 그것도 내시를!
어의에게도 절대 말 못할 영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영은 내시 삼놈이가 홍라온이란 여자임을 알게 된다.
속았다는 분노도 잠시, 가슴 속에는 기쁨이 피어오르고,
자신이 라온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마침내,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는 순조,
이 날을 위해 총명하지 않고, 힘없고, 욕심 없고, 생각 없는,
만만한 세자로 살아왔다.
자신을 알보던 대신들 앞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선 영.
치밀하게 준비된 궁중의 연향을 통해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예약으로 세도정치를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해 나간다.

영의 그 모든 파격적이고 신선한 행보의 끝엔 백성이 있었다.

백성의 대표, 홍라운이 그의 곁에서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도왔다.
하여 조선을,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로 배불리 먹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의 꿈이 되었다.

온갖 어려움에도 라온과의 애뜻한 사랑을 키워가던 영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아버지 순조의 날개를 꺾어버렸던 희대의 역적, 홍경래!
라온이 그의 숨겨진 여식이라니!

추국장 한 가운데, 서늘한 얼굴로 서서
사랑하는 이의 목을 벨 것인가?
국왕인 아버지를 두고 역모를 꾀한 패륜아가 될 것인가?
잔인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너무 기막혀 차라리 쓴 웃음이 나는,
그 순간 영의 붉어진 눈이 라온에게 묻는다.

*‘여자임을 감추고, 내 곁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가
나를 해하기 위함이었느냐. 나는 네게 정인이 아니라
아비의 목숨을 빼앗은 원수의 자식 정녕 그 뿐이었느냐.’*

■ 김윤성 (남, 19세)

귀티, 기품, 박식, 여유, 한 마디로 고급지다. 명문가 자제다움의 끝판 왕.
.....다만 너무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이 늘 아쉬웠다.

왕 위의 왕. 조선의 무소불위 권력이 김조순의 하나뿐인 귀한 친손자.
궁에서 제사 연향(宴享) 외교 등을 맡아 관장한 예조의 참정.
일찍 부모를 여의고 냉정한 할아버지 김조순 밑에서,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고, 매사 빈틈을 보여선 안 되는 아이로 자라났다.
어린 시절엔 동갑내기 이영과 동문수학 하며 모든 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으나 가문을 위해 왕 위에 군림하라 가르치는 조부의 모습을 보며
더는 영의 벼으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서서히 멀어졌다.

잘 생겼다. 그냥 바라만 봐도 눈빛이 멜로다.
“강녕하셨습니다니까?”만 했는데 고백처럼 달달하다.
수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지옥 불에 던진, 여심 살인마
그러고도 미안함 따윈 없는, 사랑의 파렴치한.

하지만 윤성은 세간의 온갖 찬양과 호들갑에도 절대 들뜨는 법이 없다.
그 밖에도 영민한 머리와 한 치도 흐트러짐 없는 곧은 자태에
윤성의 이름 앞에는 곧잘 수식어가 붙었는데,
세자보다 더 세자감이라거나, 딸 가진 내로라하는 양반가에서 모두 탐내는
일등 신랑감이란 식의 표현은 정말 식상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들었던, 도도한 기방 기생들 사이의 별명
온무파탈(溫無破斂-따뜻함은 없지만 여자의 마음을 깨뜨리고 빼앗는다.)
정도는 돼야 음 나름 괜찮군, 하는 윤성이었다.

기생들 사이에서 윤성은 단연 미스터리한 인물이다.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아무리 윤성의 목을 죄고
심장을 누른다 한들, 그 역시 열아홉 한창 나이의 사내일 뿐.
금기에 대한 호기심과 일탈에 대한 열망이 늘 가슴 한 편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할 터. 하여 아무도 모르게 기방을 출입하는 일이 잦았는데,
희한한 것은, 경국지색이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애교가 많은 기녀에게도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늘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로
기생의 벼은 몸을 화선지에 담으며, 그림 자체에만 몰두하다
바람처럼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그런 윤성을 속절없이 무장해제 시키는 녀석이 나타났다.
윤종가 담벼락마다 용모파기가 붙은 채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 삼남.
검댕칠에, 남장을 한 채 만났지만 윤성은 척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는 사내가 아니라 여인임을.
라온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짧은 인사를 끝으로 헤어졌던 두 사람.
인연은 거기까지인가 싶었는데...예조 참정으로 궐에 든 첫 날,
윤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만난 이 대책 없는 여인이
남장도 모자라 내시복을 입고 떡하니 입궐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라온을 다시 만난 윤성.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여인의 몸으로 내시가 된 사연은 뭘까? 그다음엔,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
그녀의 절박함을 보았고, 내시로서의 삶, 그 고단함이 안쓰러워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졌다. 그러다 문득 돌아보니 어느 새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 있지 않으면 그리운 지경이 된 자신을 깨달았다.

윤성은 내반원 처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낡고 작고 흙이 묻은 라온의 신발을 그리고,
그의 곁에서 까무룩 잠이 든 라온의 보드라운 눈썹을 향해

떨리는 손가락을 뺏기도 했다.

라온을 사랑하기 전까지 윤성은 어린 시절부터 조부 김조순으로부터
강요 받아온 왕위의 왕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아무 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 오히려 공허한 날들이었다.
그러다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졌고
그 주인공인 라온을 향해 저돌적으로 마음을 드러낸다.

약속된 권력도,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는 재력도, 창창한 미래도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은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었던만
그저 라온을 내시로 아낀다 여겼던 영이, 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인으로서 라온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온을 가지고 싶어졌다.
하여 윤성은 위태롭고 위험한, 어쩌면 모두를 파멸케 할
길로 기꺼이 들어서고야 마는데…….

“왕의 남자가 내시이지 여인일 때는 애기가 다르지 않소?
이 여인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한 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그 용상이란 곳!”

■ 홍라온 (여, 18세)

사랑스러운 뻔질이, 조선 최초 연애전문 카운슬러
.....가 되기까지 라온은

외로워도 슬퍼도, 올 시간이 없었다.
정직하게 살자니, 먹을 것이 없었다.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당연히 집도 없었다.
비슷한 처지인 운종가 사내들, 술만 마시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만.
“나가 가진 거라곤 따악 두 쪽 뿐인디말여!!!” ...라고
헌데.....에휴..... 그것마저도 없었다.

남녀가 유별하고 강상의 도리가 지엄하건 말건
없는 것만 한탄하며 살다가 굶어죽을 순 없기에
조선의 천하디 천한 계집 라온.
상투 틀고, 있는 척,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이라도 해보자 싶었다.
장사할 땐 뺑도 보태고, 급할 땐 거짓말도 좀 하게 됐다.

깊은 산중에 호랑이를 만나도 라온의 말발이면 친구 먹을 수 있고,
논어 맹자는 몰라도 연애편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쓴다.
절대 음감, 절대 리듬감, 몸으로 익힌 춤동작 따위를 기억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어 남사당패에 들어간 후로는 줄곧 촉망받는 에이스였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도가 터, 어긋난 남녀의 연심에는
라온이 오작교요, 운종가 서책방에서는 그녀가 쓴 연애편지
<화성에서 온 여인, 군산에서 온 사내>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서 대필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양반 인 척 사태수습을 위해 나간 자리에서 까칠하고 깔끔 떨고
음식 귀한 줄 모르는 서생 하나를 만나게 된다.
하여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랐다는 뜻을 비꼬아 화초 서생이라 부르고,
양반 행세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 직전 더러운 도랑물에도 빠뜨렸는데,
하필 그를 라온의 새로운 무대, 궁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남장을 풀고 궁녀로 입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라온은 양부모가 은자 10냥에 팔아넘긴 동생을 대신해, 내시가 되었다.
하지만 칼을 들고 덤벼드는 도자장을 속이고,
산전수전공중전으로 다져온 내공을 발휘해, 내시부에 삼.농.이 라는
이름 석 자를 무사히 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모험은 딱 거기까지다 싶었다.
아무리 온갖 금녀의 구역을 넘나들었던 그녀라 할지라도,
여인의 몸으로 내시라니! 더 이상 목숨을 내놓고 살 수는 없는 일,
그런데 하필 탈출을 시도하는 그 중요한 순간,
별감 복장을 한 화초서생과 맞닥뜨린 것이다. 뿐인가.

이후로도 한 번을 지지 않고, 딱박딱박, 예를 들면
부모 잘 만나 버는 돈은 죄다 치장하는데 쓰는 별감나리...라는 식의
온갖 구박을 일삼고 나서야 그가 궐내에 네 가지가 없기로 유명한신
세자저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악연이다 싶었던 영은, 시비를 걸고, 면박을 주고, 설 새 없이
괴롭히면서도, 그녀가 고된 궁궐 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여인임이 발각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라온을 구해주는 은인.
바꿔 말하면 목숨이 달린 엄청난 비밀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이자

그녀를 여인으로서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내 윤성과,
라온이 내관으로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부터
주머니에 공쳐둔 약과가 몇 개인지 까지, 시시콜콜한 우정을 나누는
듬직하고 편안한 사형 병연과의 인연이 쌓여갈수록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라온은 궁이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가 아니란 걸 알지만 조금만 더
내시녹봉 착실하게 모아 동생 데리고 살 작은 초가집이라도
한 칸 마련할 때, 딱 그 때 까지만... 이라고.
위험천만한 곳에서, 태어나 가장 달콤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지만 라온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존재와
아픈 가족사의 비밀은 하나하나 그 실체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영과 윤성 병연은 건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점차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내였던 라온도 천민이었던 라온도 목숨처럼 사랑해 준 한 남자.
이제 역적의 딸이자 첩자로 그의 앞에 서있다.
추궁장에 마주 선 영을 핏발 선 눈으로,
안쓰러울 만큼 최선을 다해 죽일 듯이 노려보는 라온
그녀의 냉정한 눈이 영에게 애원한다.

‘소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디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칼을 드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죽였다는 그 끔찍한 고통을
저하게 남겨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김병연 (남, 19세)

동궁전의 별감이자 영의 죽마고우.
어린 시절 예동으로 들어와 함께 뛰고 활을 당기며 둘도 없는 사이가
됐고, 지금도 영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 놓는 상대다.
우직하고 곧이곧대로 하는 성미가 있어, 동궁전 별감들과 세자가 함께
축국을 하는 날이면, 영의 봐주지 말라는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고
악착같이 달리고, 차고, 쓰러뜨려 승리를 따내
모두를 가시방석위에 올려놓기도 하는, 한마디로 눈치가 좀 없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에 능하다. 힘세고, 빠르고, 잘 막고, 잘 피한다.

몇 번 만져 본 무기는 금방 습득하여 자유자재로 다룬다.
특히 그의 검술은 정확하고 빠른 걸 넘어, 매끈하고 아름답기가
마치 잘 만들어진 검무를 보는 것 같다. 조선의 최고 실력자이자,
별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며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을 지킨다.

사실 병연의 진짜 필살기는 검이 아닌 시(詩)다.
요즘 예술품을 취급하는 암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 칼끝처럼 날카로운 필체, 자유롭고 거침없는 문장으로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됨은 물론,
청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알린 신비주의 시인 무명(無名).
그 명문장이 바로 병연의 것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인가부터 영과 그의 사이에, 불쑥 들어온 아이 라온.
김형 김형 하며 쫓아다니는 녀석이 귀찮기도 했지만
라온 덕분에 몰랐던 일상의 재미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게 좋다.
큰 소리 내 웃는 법도, 쓰기만 했던 술의 맛도 배워간다.

라온이 여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
왜소하긴 해도 사내 녀석인데 싫어, 무거운 짐도 퍽퍽 맡기고,
칼을 배우고 싶다가에 혹독한 훈련도 시키고
등목을 해주겠다고 잡아끌기도 했던 자신을 떠올리며,
바짝 얼어 한 동안 라온을 피하느라 고생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영이 라온을 여인으로 연모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일순 심장이 쿵 내려앉기도 했지만, 라온과 함께 있는 그가
행복해 보이니 그래,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병연이었다.

사실 그는 민란으로 부모를 잃고 백운회에 의해 병기로 길러졌다.
거짓 신분을 사고, 거짓 족보와 이름을 만들어 영의 곁에 머무는 것.
영을 지키는 칼로 언제든 그를 벨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고작 9살 아이에게 떨어진 명령이었고, 곧 삶의 목표였다.

어디서든 누군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위협받을지 모르는 세자라는 자리,
누구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는 영이 그 쓸쓸함과 두려움을 내보이는
유일한 사람이 나인데.. 하여 병연은 늘 영의 가까이에 있어 행복했고,
행복한 만큼 괴로웠다.
결국 김조순의 계략에 의해 백운회와 영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하고 백운회의 수장으로 영의 앞에 나선 병연!

배신감과 놀람으로 사정없이 흔들리는 영의 눈빛을 외면하며
그를 향해 날카롭게 버린 단도를 뽑아든다.

병연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 담담하기만 한데...

“내가 그를 살린다면, 그건 변절했기 때문이 아니다.
백운회가 만들어갈 조선을 더 이상 꿈꾸지 않아서가 아니다.
영이 만들어갈 조선과 내가 꿈꾸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고,
내가 믿었던 군주는 그런 자였노라..... 믿기 때문이다.”

■ 조하연 (여, 18세)

조만영의 딸. 외가가 있는 경남 지역에서 지내다가
열여덟이 되면서 도성으로 돌아왔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붉은 입술, 칠흑 같이 검은 머리에
얼음장처럼 냉정하고 도도한 성격까지 더해져 못사내들에게
백설 낭자라 불린다.

그런 그녀가 도성으로 떠날 때, 온 동네 도령들이 죄 달려 나와
멀어져가는 그녀의 가마를 바라보며 쓴 눈물을 삼켰다.

도성으로 온 후 김조순의 손자인 윤성과 혼담이 오가는데,
이를 견제하고자, 순조가 하연을 세자빈감으로 점찍는다.
어릴 적 친구인 명온공주를 만나러 궐에 들었던 날,
우연히 영과 스친 하연은 김조순과 순조를 두고 고민하는 아비에게
여염집 부인보단 나라의 안주인이 되게 해 달라, 당돌하게 청했다.

그리고 혼인에 관심이 없다는 영을 직접 찾아가 정치적 정략결혼을
제안하는 하연. 말은 그리 했지만 자신 있었다.

조만간 저 무심한 사내를 사로잡아 자신의 치마폭에 감싸 안을 거라고.
그러나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세자는 요지부동.
자신에게 늘 예의바르고 깎듯했으나 그 이상은 없었다.

고고한 자존심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할 때쯤, 자신을 외면한
세자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늘 한 내관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의구심이 짙어갈 때쯤, 그 내관이 사실 여인이라는 걸 알았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열패감과 수치심이 하연을 휘감고

이제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렵다.

■ 김조순 (남, 60대)

영의정. 김씨 세력의 수장. 중전과 윤성의 아버지. 부원군.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 속에 칼을 감추고 있으며
그 칼을 뽑아 휘두르는 때에도 절대 제 손에는 피를 묻히는 법이 없다.
김조순의 한 마디면 역모의 죄라도 뒤집어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리고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천대받고 배고픈 이들에게 그의 사람이 되는 것은 꿈이었고,
그는 상처 많은 이들에게 손톱만큼만 은혜를 베풀면
수 천 수 만 곱절의 충성심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향간엔 ‘부원군댁 사람이 되면, 귀신이 되어서도 굶을 일이 없다.’
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

겉으로는 권력에 대해서 늘 절제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미 조정에도 김조순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은 매한가지라,
왕이 있으면 뭐하나 세자가 있으면 뭐하나 이미 조선은 내 발 아래 있어
세상천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왕위의 왕으로 살아가며 죽고 없는 아들 대신
유일한 손자인 윤성에게 이 영광스런 자리를 물려 줄 참인데,
어느 날, 윤성이 기방에서 기녀들의 벗은 몸을 그린다는 추잡한
소문이 들려온다.
윤성의 방으로 가 숨겨진 기생 그림들을 찾아낸 김조순.
그림을 떼하니 벽에 전시해 놓고 돌아온 윤성을 맞이한다.
호통을 치거나 매를 치는 대신, 이 같은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구나
하며 윤성의 떨리는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지만
그 속에 숨은 매서운 질타와 경고를 윤성이 모를 리 없었다.

방문을 나서며 김조순은 생각했다.
새끼 때부터 이빨, 발톱 뽑아내고 매질해 기르면 호랑이가
호랑이로 클 수 있을 것 같으냐?
사람도 짐승과 하나 다를 게 없어, 길들이고 조련하기 나름인 법.
마음만 먹으면 어떤 맹수도 손바닥 위에서 혀를 할딱거리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겁쟁이 아비에 반푼이 세자라고 우습게 봤던 영이
본색을 드러내며 김조순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그 간의 모습들이 다 위장이랬다? 너털웃음을 터뜨리는 김조순.
백성의 희망? 새로운 정치? 뜬 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애송이 하나쯤은 얼마든지 밟아 줄 수 있다 자신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의 공세가 심상치 않고.
이제 웃음기를 지운 김조순이 제대로 영을 상대하기 시작한다.

■ 중전 김씨 (여, 25세)

김조순의 막내딸. 영의 생모가 죽고, 김조순이 세운 두 번째 중전.
중전 후보로 세우던 막내딸이 불시에 죽자, 세간의 눈을 피해
장례를 치르고는 그간 외면하던 기생의 몸에서 낳은 딸, 김씨를
데려다 막내딸로 둔갑시켰다.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외모에 뚝뚝 하고 눈치가 빨라, 김조순의 눈에는
들었지만 태생 탓으로 늘 냉대와 핍박을 견뎌야 했다.
하여 독기와 오기로 톨톨 뭉쳐 있고, 돈과 권력에 처절할 정도로
집착한다.
신분을 세탁시켜 중전의 자리까지 올려 준 김조순에게 충성을 다하고는
있지만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제거해버릴 마음도 있다.

대군을 낳은 뒤, 영을 폐하고, 세자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지상 목표
인데 중전 자리에 오른 지 7년만에야 겨우 회임을 하였다.
하여 목숨을 걸고 점쟁이, 땡중, 무녀 등을 불러들이고,
아들을 낳기 위한 온갖 비책을 실천 했건만, 용한 무녀가 말하길,
뱃속의 아이는 공주란다.

급기야 별감과 정을 통해 아이를 뱃 궁녀를 숨겨 두었다가
자신이 낳은 딸과 궁녀의 아들을 바꿔치기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모함과 계략, 술수의 대가로 라온과 영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이 궁녀와 함께 죽이라 명했던, 핏덩이 친딸이
윤성에 의해 살아있었음을 알게 된 후 마음이 흔들린다.
그리하여 김조순이 영을 없애고자 세웠던 계획에
의외의 변수로 작용한다.

■ 순조 (남, 40대 초반)

결정 장애, 우울증과 화병을 앓고 있는 무기력한 왕.
너무 어린 시절 왕이 되었고, 대비의 수렴청정과 외척의 등쌀에
유약한 군주가 되고 말았다.
친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친위부대 양성, 암행어사
파견 등 외척의 세도정치에 대항하기 위해 분골쇄신 애를 썼으나,
장인이기도 한 김조순과 그의 측근을 몰아내려는 찰나,
홍경래의 난이 터졌고, 난을 진압한 김조순 일파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 할 수밖에 없었다.

순조의 마지막 의지마저 꺾어버린 홍경래,
아직도 그에 대한 악몽에 시달리고, 민란이라면 치가 떨린다.
영의 생모인 중전이 죽고,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가.
김조순의 뜻대로 고분고분 그의 딸을 새 중전으로 맞이하고 만다.

겉으론 어리고 요염한 중전의 품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신 못 차리는
한심한 왕으로 보이지만, 실은 아들인 영과, 영이 만들어 갈
조선의 미래를 위해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버티는 중이다.
자신이 더 나약해지고 더 어리석어 지기 전에
신하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영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이 목표다.

■ 숙의 박씨 (여, 30대 후반)

왕의 유일한 후궁이자 영온옹주의 어미.
아름답고 단정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으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순조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생모가 죽으면서 부탁한 대로,
그에게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을 쏟았고, 영 역시 그런 숙의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의지한다.

새 중전이 들어 온 후, 표독하고 질투심 많은 그녀로 인해
순조의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눈물로 쓴 연서만을 하염없이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떤 절절한 말을 써 보내도, 돌아오는 건 희디 흰 백지답신 뿐.
마음의 병은 몸으로 이어져 급기야 몸져눕고 마는데, 라온에 의해
백지 서신의 비밀이 풀리고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여리고 유약하나 김조순과 새중전의 계략으로부터 라온을 지켜내는데 큰 도움을 준다.

■ 명온공주 (여, 17세)

영의 여동생.

뽀얀 피부와 오밀조밀한 이목구비가 꽤 예뻐던 어린 시절,
환한 웃음과 애교로 아버지 순조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다.
하지만 명온의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던 순조가 무릎에 앉혀놓고
달달한 다식이나 강정을 썰 새 없이 입에 넣어준 뒤, 행여 목 메일까
바로 이어 식혜나 수정과를 대령하기를 어언 10년...

*“단 걸 먹고 나면 짠 게 땀기고, 그래서 짠 걸 먹고 나면
또 단 게 땀기는 데 어찌란 말이냐?”*

그 무섭다는 단짠단짠의 마수에 걸려들어,
현재 명온의 커다란 눈과 오뚝한 콧날은 불룩한 볼 살에 묻혀 사라지고,
그녀의 치마는 침방 나인 셋이 둘러 입어도 넉넉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푸근한 외모에도 한 번 공주는 영원한 공주.
자존심 세고, 새침 명랑한 성격은 그대로다.

어느 날, 운종가 나들이를 갔다가 이름 모를 도령으로부터
달콤한 연서를 전해 받게 되고, 답장을 주고받으며,
명온의 가슴 가득 봄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주인공이 웬 찌질한 도령에, 그나마도 흥내관이 대필을 한
가짜 연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분노와 슬픔, 상실감과 그리움을
넘나들다가 상사병으로 앓아눕는 명온.

자취도 없이 사라졌던 정도령이 과거 급제하여 궁궐로 들어오면서
드디어 맞닥뜨린 두 사람. 공주를 능멸한 죄를 물어야 마땅하건만...
어찌된 까닭인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묻고 싶어져 큰일이다.
고심 끝에 라온을 고용(?)해 속성 다이어트를 비롯, 온갖 연애 비법을
배워가며 정도령 사로잡기에 돌입한다.

■ 정덕호 (남, 22세)

도성 내 알아주는 현금부자 정진사네 막내 도령. 정약용의 먼 친척.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에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더듬어 고민이 깊다.
어느 날 그네를 타고 있는 아름다운 아씨에게 반해, 상사병이 시작됐고
머슴 달봉이 데리고 온, 연서의 달인 라온 에게 대필을 부탁하여
그 이름 모를 아씨와 달달한 연서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아씨가 공주라는 사실에 기함, 달봉과 라온에게 뒷수습을 부탁하고는
부모의 종용으로 관심도 없는 과거 공부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

사실 그는 공부는 딱 질색에, 운동실력도 썸병이지만 전쟁에 관한한 모르는
게 없는 괴짜다. 온갖 병서는 물론 동 서양의 무기와, 병법, 군복부터
군식량, 조선의 군 요충지와 지형을 줄줄 꿰다.

쓸데없는 짓 한다며 좋아리도 수없이 맞았지만 그의 은밀한 열정은 그칠 줄
을 몰랐는데, 마침 영이 시행한 파격적인 과거에서 그 집요함을 인정받아
급제를 하는 대 사건이 일어나고, 입궐 후 명온공주와 딱! 만나고 마는데.
사실 반했던 남자는 공주가 아닌 궁녀란 말을 차마 못하고 아슬 아슬
목숨을 건 로맨스를 억지로 시작하는 덕호!
무섭고 싫기만 했던 명온공주와의 시간을 언젠가부터 기다리게 되고,
통통한 손목이 참 예쁘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던 그 즈음,
그가 공주가 아닌 궁녀에게 반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만다.

그를 무섭게 몰아붙이며 궁궐에서 내쫓는 명온의 오라비, 세자 영.
쫓겨난다는 슬픔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명온의 눈에 맺힌
원망과 슬픔이 더 가슴 아픈 덕호.
그러나 궐을 나온 직후, 영이 자신을 쫓아 낸 진짜 이유와 임무가 적힌
밀지를 건네받고 암행어사로 활약, 영의 든든한 신하가 된다.
그리고 명온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한다.

■ 영온옹주 (여, 9세)

순조와 숙의 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옹주.
7살 되던 해, 김조순과 영의 생모인 전 중전 사이의 비극을 목도하고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어 그 뒤로 말과 웃음을 잃은 채 지내 왔다.
그러다 라온을 만나 저자거리 수화를 배우며 친구가 되더니 그 후로 온갖
잡거를 배워 음전해야할 옹주에서 말괄량으로 변모해 간다.
기억력이 좋고, 께도 많은 귀여운 꼬마.

김조순이 영을 해하려 함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 닫았던 말문을 열어 영의 생모의 죽음에 얹힌 진실을 밝힌다.

*** 내관 및 궁궐 사람들 ***

■ 한상익 (남, 60대)

내시부 상선 중 한 명. 수라간 지휘가 아닌,
내시부의 관원 전체를 감독·통솔하는 내시부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웃전의 눈빛만 봐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읽어내고 대령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웃전이 없는 자리에서 그는 방금 한 말도 까먹고, 어제한 결정도
까먹고, 더러는 관모도 까먹어 민머리로 입궐을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그의 건망증만 믿고 일처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듯 카리스마 넘치는 수장과 허당 내관을
넘나드는 그의 모습에 내관들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그런 그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백운회의 수장. 홍경래의 난 당시
짧은 인연이 있었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의 열망과 포부에
감화되었다. 또 오랜 시간 궁에 있으면서 유능한 왕은 끌어내리고,
무능한 왕은 멋대로 조종하는 사대부들의 전횡과 탐욕에 신물이 났고,
허황된 명분에 사로잡혀 번번이 주저앉는 왕들도 지켜왔다.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은 그들이 아닌 백성이 되어야 한다!
백운회를 통해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을거라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홍경래의 딸인 라온이 여자의 몸으로 내시로 궁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기함한다. 그러나 무리해서 출궁시키려는 시도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병연으로 하여금 라온을 지키게 하고, 자신도 보이지 않게 돕는다.

훗날 김조순이 라온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저지하고자 하다 죽음을 맞는다.

■ 장내관 (남, 20대 중반)

동궁전 상제(궐내 소제 임무) 내관.
조선 건국부터 지금까지 궐에 있었던 사건, 사람, 각종 비화와 소문까지

모르는 게 없고, 기억 못하는 게 없다. 그때 그거 뭐더라? 하고 툭,
치기만 해도 “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으로 시작하는
레파토리가 줄줄 나온다.

그렇게 타고난 기억력과 진득한 인내력, 그리고 강인한 체력까지
내관의 덕목을 고루 갖추고, 동궁전 살림을 톡 소리 나게
꾸려 나가는 그는, 까탈스런 세자의 등쌀에도 불구하고,
뽕세기로 유명한 동궁전 최장 근무 기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 명예로운 타이틀을 얻는 데엔 그만의 비기가 큰 역할을 했는데,
왕세자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궁궐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파악해,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짹짹 사라졌다가 필요하면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나는 재주가 바로 그것이었다.

비굴하기 짝이 없다, 눈물 없인 볼 수 없다는 내시들의 원성에도 불구
다 년간의 연구와 노력으로 완성된 완벽한 처세술을, 동궁전 소환으로 온
라온에게 전수하고자 애쓴다.

늘 밝고 유쾌해 보이지만, 11명의 동생과 골골하는 부모의 부양을 홀로
책임진 가장이다. 그를 안 김조순이 돈으로 매수해 영을 해치는데
이용코자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마음을 돌리고 영을 지킨다.

■ 도기 (남, 10대 후반)

라온과 같은 소환. 17세의 나이지만, 30대 내관도 처음 보면
나으리! 소리가 나올 만큼 지독한 노안이다.
의약 처방과 시약(施藥)에 관한 일을 맡아하는
상약 내관의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
라온, 상열과 함께 매번 불통을 받다 친해져 불통파로 통한다.

라온도 도기에게 말을 놓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정도.
본인 주장은 어릴 때 한약을 잘 못 먹어 그렇단다.

도성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 약과 침에 관심이 많고,
침술에 특별한 재주도 있다. 특히 궁녀들의 꺼진 불은 뽕뽕하게,
눈웃음은 애교 있게, 사각턱은 뽕뽕하게 만들어 주는 보독소(保毒素, 도움
이 되는 독소)침술을 개발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주 고객인 월희에게 침도 놔주고, 말동무도 해주다가 그만 덜컥

연심을 품고 말았다. 그러나 월희의 마음은 번번이 다른 곳을 향하고,
마음만은 뽕송뽕송한 열일곱 소년의 첫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 성열 (남, 20대 초반)

웃음내시가 꿈인 소환. 도기, 라온과 함께 불통파.
귀여운 얼굴과 화려한 말솜씨를 가진 성열의 꿈은 단 하나.
아직 그 누구도 성공한 적 없다는 왕세자 이영을 웃기는 일이다.
웃음 내시가 되어, 자신의 몸짓과 재롱에 빵 터진 세자마마의 목젓을
보게 될 그 날을 위해 늦은 밤까지 만담과 몸개그를 연마하느라 바쁘다.

라온이 예기치 못하게 웃음내시로 급 승진을 하자, 충격과 질투로
잠시 방황하기도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동무인 라온이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그간 갈고 닦아온 개그들을 무상으로 전수 해주마, 나서는데
그의 개그는 충격적으로 재미가 없었으니...!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남사당패 출신 실력파 라온에게 특훈을
받게 되는 성열. 덕분에 자신이 성대모사에 기가 막힌 재주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평범하고 지루했던 만담에 그만의 색을 입힌다.
조선 최초 만담꾼 내시를 꿈꾸며!
다소 가벼워 보이냐 라온이 힘들 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의리파.

■ 성 내관 (남, 30대 후반)

타고난 고자로 전 상선의 양자로 들어와 내시가 되었다.
중궁전의 설리로, 내반원의 실세이자 김조순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한다.

‘공(功)은 다 내꺼요, 과(過)는 다 니꺼!’ 정신으로 무장한
권위적인 상사의 표본.
지위를 이용해 내시부 내관들을 멋대로 집안 행사에 동원하고,
자신의 농담에 안 웃으면 정색하고, 쉬는 날 등산하자고 불려낸다.
뿐인가, 아랫사람들끼리 한바탕 놀아보자는 모꼬지에 기어이 찾아와
파할때까지 자리를 지켜 썰렁한 분위기로 만든다.
특히 말꼬투리를 잡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하면 웬만한 강심장들도
눈물을 쏙 빨 정도.
감히 신 참례도 치르지 않는 라온을 미워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힌다.
그러나 그게 탄탄대로였던 자신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 마종자 (남, 20대 중반)

성 내관의 충직한 수하. 소환들을 관리한다.
간간하고 집요하며, 융통성이라곤 약에 쓸래도 없다.
싸늘한 포커페이스로 소환들의 공공의 적, 개종자라 불린다.
내관답지 않은 우락부락한 얼굴과 낮은 목소리, 출중한 무술 솜씨를 갖춰
늘 되살이(환관의 양물이 되살아나는 것)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성내관의 명으로 지독히도 라온을 괴롭히지만 결국 믿었던 성 내관에게
팽 당하고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마지막 순간 라온에게 똑똑하게나마
사과의 말을 내뱉고.
그간 들어왔던 궤의 치부, 특히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퇴궐 시 들고 나온
성내관과 김조순의 비리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좌들을
예기치 못한 순간 꺼내들어, 김조순의 목을 찌른다.

■ 월희 (여, 20대 초반)

궁녀. 이제 막 동궁전으로 발령을 받았다.
세자의 까칠한 성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그녀 또한 들었지만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흥미롭다. 쉬운 남자는 딱 질색이니까..!
그녀의 목표는 세자를 사로잡아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 뿐.

세자가 가는 길목마다 서서 게슴츠레한 눈길을 날려 보기도 하고,
책을 읽는 세자 앞에서 정신을 잃는 척도 해보고, 비를 맞은 척 젖은
한복 차림으로 아련히 올려다보기도 했건만, 이 세자... 뭔가 이상하다.
매일 보는 자신을 기억도 못함은 물론 뭘 짓을 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끊임없이 작전을 구상하던 어느 날,
거칠고 냄새나고 눈치라고는 없는 말단 종사관이 자꾸만 들이댄다.
궁녀를 넘보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직진만 하는 짐승 같은 사내,
콧방귀를 끼며 무시했건만, 어쩐지 그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데..
내시인 라온과 할머니 제사 사건으로 인연을 맺고, 연애 상담까지 나누며
절친한 사이가 된다. 종사관 최재우를 사랑하게 되고 훗날 영의 배려로
출궁하여 그와 함께한다.

■ 최재우 (남, 20대 중반)

좌포청 종사관.

성인 남자도 한손으로 번쩍 드는 괴력이 그의 트레이드마크.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배포도 커, 남자 중의 남자로 불리며

상관과 동료, 후배들에게 신망이 높다.

궁녀인 월희에게 한 눈에 반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는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 중의 바보. 시커먼 남자들에게서 얻은

단순 무식한 연애 비법은 매번 월희의 기분을 상하게만 하고,

분명히 좋아할 거래서 준비한 선물을 쥐도 눈만 흘길 뿐...

도대체 여자의 마음은 알 길이 없는데,

그런 재우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 온 연애 상담가 홍내관!

당기기만 하면 어찌요? 밀기도 하셔야지!

그렇게 낯설기만 한 밀당을 배워가며 월희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는다.

참수형 대신, 월희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도와 준 세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그의 충직한 부하가 된다.

■ 정약용 (남, 50대 중반)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술을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

전자의 경우 강박이 심하다. 각 잡은 의복 정제는 기본.

남의 옷에 붙은 머리카락 먼지 한 톨도 떼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서책이 놓인 순서와 모양, 갓이 걸려 있는 각도, 붓과 벼루 사이의

거리까지 일정해야 마음이 놓인다.

후자의 경우는 그 반대다. 순간적으로 몹시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갓도 획, 버선도 획 벗어 던지고 최소한의 차림을 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술에 취해, 주막에서 묶어 키우는 개와 서로 한참을

으르렁 거리다 결국 뒤엎켜 한바탕 물고 뜯은 적도 있다.

이렇게 진정한 개싸움도 종종 한다.

라온의 생명의 은인. 유배 중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산에 버려져 죽어가던 라온을 구해 친할아버지처럼 아끼며 돌봐주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온의 유년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관군들이 동네를 돌며 홍경래의 핏줄을 찾을 당시,

사방에 용모파기가 나붙어 라온이 홍경래의 여식임을 알게 됐다.

하지만 추격을 따돌리던 중, 안타깝게 헤어졌고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이 상처로 남았다.

늘 남들과 한 곳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한 발 앞선 시대를 꿈꾼다. 천재적인 두뇌를 바탕으로 한
방대하고도 깊은 학식과 통찰력을 지닌 호인,
훗날 대리청정을 하는 영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줌과 동시에
다시 만난 라온을 번번이 위험에서 구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단, 술이 들어가지 않아 멀쩡할 때만.

편견 사람들

■ 박규수 (남, 30대 후반)

홍문관 직제학. 대리청정 이후 영이 등용하는 인물로 안동김씨 반대파.
격랑의 시대인 19세기, 시대사적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그에 대비하고 적응하고자한 깨어있는 지식인.
영에게 선진문물과 외서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여
영의 정치적 성장을 돕는다.
방대한 지식과 뛰어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지독한 독설가.
상대의 나이와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 거침없는 그의 직언에
김조순 일파는 여러 번 창피를 당해 눈엣가시로 여기고,
조정 신료 모두가 그와는 토론을 극도로 기피한다.
그를 아끼는 영마저 옥한 적이 있을 정도.

■ 조만영 (남, 50대)

병조 참판. 하연의 아버지.
안동김씨가 득세한 조정에서 몸을 낮추고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감추고 있지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다.
김조순이 그의 손자 윤성과 자신의 딸 하연을 혼례 시키자는 제안으로
은근히 손을 잡자는 의사를 전달했고, 고민하고 있을 때
순조의 부름을 받는다. 딸 하연을 영의 세자빈으로 삼겠다는 순조.
안전하게 김조순과 손을 잡을지, 아니면 순조와 함께 그 세력에 맞서 볼지
고민하는 중이다.

■ 김로 (남, 40대)

사헌부 대사헌. 대리청정 이후 영이 등용하는 인물로 안동김씨 반대파.

■ 김이교 (남, 40대)

이조판서. 김조순 일파.

■ 김교근 (남, 40대)

호조판서. 김조순의 조카.

그 외 인물들

■ 국밥집 신씨(여, 60대)

수라간 궁녀 출신으로 주막을 운영한다.

맛있는 국밥과 더불어 차진 욕설로 더 유명하다.

주막 한 편에서 담배가게를 하는 홀아비 구씨와 씬 아닌 씬을 타고 있지만 한 번 궁녀는 영원한 왕의 여자라며 곳곳하게 버티는 중이다.

■ 구씨(남, 60대)

신씨할매네 주막에 묵으면서 가게 한 편에서 담배가게를 운영 중.

갈 곳 없어진 동이를 맡아 길러주는 정 많고 웃음 많은 푸근한 남자다.

신씨가 국밥 그릇을 탕! 내려놓으며 걸쭉한 욕을 내뿜는 터프한 모습에 반해 씬 없이 들이대며, 모진 구박에도 그저 허허 웃고 만다.

■ 동이 (남, 10세)

라온이 있던 남사당패 무동. 6살 무렵 사당패에 들어왔고

라온이 막내 자리를 물려주고 이것저것 알려주다가 친해졌다.

외롭고 고된 떠돌이 생활에 서로 의지하다보니 친남매처럼 애뜻하다.

라온이 형이 아닌 누나임을 알지만 다른 이들 앞에서는 철저히 조심한다.

■ 김소사 (여, 40대 후반)

라온의 엄마. 홍경래가 혁명을 준비할 때부터 철저히 라온과 분리시켰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딸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
아비의 이름마저 죽고 없다며 가르쳐주지 않았다.
난리통에 라온과 헤어지고 오랜 세월 라온을 찾아 헤매고 있다.

■ 금복 (여, 20대 중반)

침방 나인으로 별감과 눈이 맞아 아이를 가진다.
감찰 상궁에게 적발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 중전 김씨가 그 사실을 알고
그녀를 구한다. 중궁전 골방에서 낳은 아들을 중전의 아이와 바꿔치기하고
중전이 낳은 딸과 껌 밖으로 나가는데, 중전의 지시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윤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아 숨어 살고 있다.
중전 김씨의 치부를 틀어 쥔 인물.

백운회

홍경래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식인, 상인, 역노 출신 무관 등이 모여
혼란한 나라를 혁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단체.
본거지에는 탐관오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짜 명령을 내리는
백운회의 우두머리 브레인들이 주둔하고 있고,
궁과 각 고을 관청, 기방, 반촌 거지들 사이에 정보원이 심어져 있다.
본거지의 지령을 받으면 행동파가 실행에 옮기는데,
행동파 소속은 무예가 뛰어나고 발이 빠르며 임기응변에 대처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 계획이 실패에 돌아가더라도 순식간에 정체를 감춘다.
탐관오리의 죄질에 따라 벌주는 방법이 다양하며,
거둬들인 곡식은 그 즉시 가능한 많은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 1 원칙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활동을 이끄는
우두머리들은 같은 모양의 탈을 쓰고, 같은 표식을 남긴다.
하여 민초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존경 아래 점차 세를 규합해 나가고
있으며, 종래에는 민중혁명을 꿈꾼다.

■ 홍경래 (남, 40대 중반)

라온의 아버지. 5척 키에 작은 체구, 허나
대장부[大丈夫]의 큰 대자는 덩치를 일컫는 게 아니었다.
천한 신분예, 가진 것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 소 돼지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웁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

홍경래의 난이 최종 진압된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라와 임금이 아닌, 홍경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백성들 사이에는 그가 살아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존재만으로도 백운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성은 가난 때문에 불평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오!”*

■ 장기백 (남, 40대)

백운회의 일원. 강인한 체력과 무술실력, 통솔력을 갖춘 리더.
꾸짖을 때도 시원스럽게, 기 살려 줄 때도 시원스럽게 하고.....싫지만!!
안타깝게도 말주변이 없다.

*“에..... 그러니까.....그게.... 뭔지 알지? 다 알지?
그래, 허허허 니 맘이 내 맘이고 자식아. 알았으면 된 거지”*

늘 이런 식이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의 눈빛 속에, 등 한번 툭툭 쳐주는 그 손길 속에 담겨진
엄한 꾸짖음이나, 특급칭찬이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스파이로 영의 곁에 심어 놓은, 병연에 대한 애뜻함이 있다.
하지만 병연이 심중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게 느껴지자,
누구보다 먼저 그 파동을 알아채고 병연을 예의주시한다.

■ 화령 (여, 20세)

백운회의 일원. 큰 키와 서늘한 눈매의 미녀.
활을 들고 지붕 위를 달리는 모습이 한 마리의 새처럼 가볍고 아름답다.

병연만 보면 못마땅한 점 천지인 듯 사사건건 투덜투덜 따지고 든다.
하여 곰 같은 병연은 자신을 무지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화령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절대 말 안 섞는다.
불같은 성미에 대화 도중 활을 집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금 최선을 다해 병연을 좋아한다, 표내고 있다는 걸
답답한 병연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가끔씩 백운회 본거지를 찾는 그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또 그가 오면 건네 볼 말과 지어보일 웃음을 연습도 해보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자신이 더 화가 나서
아우우...!!! 하고 난데 없이 괴성을 질러버리는 귀여운 폭탄.
사랑 받아 본 적도,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긴 일도 처음이라
사람의 마음 얻는 방법 따윈 배울 기회가 없었다. 병연을 보러
궁녀로 위장, 궐에 들어갈 만큼 무모하고 배짱이 좋다.

“아...씨...진짜... 탐나는 물건은 훔쳐오면 그만인데,
저 자식 내켜 만들려면 대체 어떡해야 돼요? 예?”

■ 변씨 (남, 30대)

백운회의 일원. 작은 키와 왜소한 몸,
무술엔 쟁쟁하지만 잔망스러운 아이디어가 넘친다.
관청의 수문장 따돌리기, 위험한 순간 꼬마들 풀어 시선 분산시키기,
밀지 전달하기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그의 좌우명은 계명구도(鷄鳴狗盜)

“거봐! 닭 울음소리 내는 제주도 개 도둑도 다 쓸 데가 있다니께!!”

하며 짓궂은 동료들이 똥가 똥가 놀려도 그저 배시시 웃고 만다.
그러나 실상은 미소 뒤에 악랄함과 잔인함을 감춘, 김조순의 간자다.
훗날 라온에게 큰 위협이 된다.

■ 박만충 (남, 40대)

백운회의 일원. 몰락한 양반가의 낙방서생.
평소에는 아내에게 밥벌레 소리까지 듣는 처량한 신세지만
백운회에 들어오는 순간 눈빛에 살기가 돈다.
동료들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는 의문의 사내.

IV. 이야기

유난히 햇살이 따스한 봄 날 이견만,
동궁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한 겨울 살얼음판이었다.
세자인 영이 수업을 마다하고 어디선가 악사와 여령을 데리고 장구를 뚱뚱거리는
건 일상다반사였지만, 왕이 예고도 없이 수업 중인 세자를 보겠다며 발걸음을
동궁전으로 돌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난데없는 불벼락에 왕 도착 전까지 영을
찾기 위해 내시들의 발바닥에선 땀이 나는데...!

하지만 왕이 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누정에 도착했을 때, 영은 거짓말처럼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에 앉아 맑은 눈을 빛내며 수업에 열중이었다.
진남당의 숙흥야매잡을 줄줄 외는 영을 보다, 왕이 만족스런 미소로
몸을 돌리려는 그때,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영 앞에 놓였던 커닝 페이퍼가 왕의
발밑으로 날아가고, 겨우 안도의 한숨을 뿔었던 스승과 내시들은 바닥에 머리를
짚으며 죽여주시옵소서... 울부짚었다.
심기가 불편해진 순조와 대신들은 한숨과 함께 가버리고, 그 와중에도 태연하게
농담을 하는 영을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왕위의 왕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영의정이자 왕의 장인, 김조순이었다.
강력한 외척 세력으로, 왕이고 세자고 다 허수아비일 뿐이다. 하여 조종하기 쉬운 자
로 길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김조순에게 영은 마음에 쏙 드는 세자다.
어린 시절 영특함은 온데간데없고 반폰이 날라리 세자로 있어주니 역시 하늘도
우리집안 편이구나 웃음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이다.

같은 시각, 김조순의 하나뿐인 손자 윤성이 청나라 자제군관으로서 사행을 마치고
막 조선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어느 한 군데 모자라는 곳 없이 반듯한 외모와
그 보다 더 반듯한 성정으로 도성 내 유명인사인 윤성.
도착하자마자 마중 나온 심복을 따돌리려, 이름 모를 여인의 마음을 슬쩍
훑치고는 집 대신 운종가로 향한다.
왕위의 왕 자리를 물려주려는 조부의 계획에 어릴 때부터 숨도 못 설만큼
빡빡한 공부와 예절을 강요받아 온 그에게 자유로운 청나라 생활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는데 이대로 끝내긴 아쉬워 마지막으로 시끌벅적한 운종가 바람이나
쐬 볼 요량이었던 것이다.

한 편 영 역시 변복을 하고 운종가로 향하고 있었다. 아끼는 여동생 명온이
요즘 웬 도령과 몰래 연서를 주고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신 나간 놈을 한 번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발각되는 즉시 치도곤을 면치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연모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한 짓인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같은 사내의 입장에서 후덕하기 그지없는 명온의 면모를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 일 리 없다는 의심이 컸다.

그리고 두 사내가 향하는 그 운종가에서 라온 역시 어색한 양반 옷을 걸치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다.
수입이 짹짹해 소일거리 삼아 몇 번 해준, 연서 대필 때문에 사달이 난 것이다.
의뢰인 정도령의 간곡한 부탁과, 묵직하게 던져진 엽전 꾸러미 때문에
그러마하긴 했지만, 대필도 모자라 정도령 행세를 하며 이별을 고하고 오라니.
약속 장소에 도착한 라온.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 규수기에,
정도령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대라며 별별 떨었는고?
하고 바라 본 상대는, 정말 해사하기 그지없는.....사내였다.
이런, 신분의 벽이 아니라 성별의 벽이었군. 쭈쭈쭈.....

그런데 라온을 바라보는 영의 얼굴은 더 기가 막혔다.
계집애처럼 비실비실하고 곱상한 얼굴로 양반입네 능청을 떨고 있지만
지가 쓴 연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이리보고
저리봐도 양반이 아닌데 양반이랍시고 바둑바둑 우기는 모양이 웃기기까지 했다.
하여 정말 양반이 맞다면 집으로 가 확인을 하잔 말에, 얼굴이 하얘지더니
결국은 영을 거짓말로 유인해 더러운 통구덩이에 빠뜨린 뒤 냅다 도망쳐 버리고
만 라온. 연신 미안하다 빌면서도 발이 안 보이게 줄행랑을 치는 라온을 보며
영은 이를 바둑바둑 간다.

그렇게 영을 따돌리고 가까스로 운종가로 돌아온 라온.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얼마 전 어긋난 두 남 녀의 상열지사를 봉합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남녀와 자신의 용모파기가 나란히 운종가 벽을 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마님과 돌쇠 사이였던 둘이 야반도주를 감행하면서 오작교 노릇을 한
라온 마저 수배(?)를 당한 거였다. 녀이 나간 라온에게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고...

윤성은 용모파기 앞에 서서 검댕칠을 하고 가짜인 게 틀림없는 왕점을 붙인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라온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갑옷을 입었다한들, 여인의 몸만은 알아보는 윤성의 눈에
라온은 틀림없는 여인인데.
포졸들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의 라온을 구해준 건, 이 발칙한 남장여자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나루터에서 우연히 봤던 라온이 맺어 줬다는 두 남녀의
더 없이 행복해 보였던 얼굴 때문이었다.
그렇게 영과 윤성 두 남자와 강렬한 첫 만남을 한 라온은, 가족과 다름없는

사당패의 빛과 수배 중인 신분 때문에 얼떨결에 내시가 된다.
그간 남장을 한 채 사느라, 궂은 일 험한 일 안 겪어 본 게 없었지만,
있지도 않은 양물을 자르겠다며 칼을 들고 덤벼드는 도자장 채천수를
무사히 속여 넘긴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그렇게 내시가 되어 궁에 들어간 라온. 첫 날부터 여자임을 들킬 위기에 처하고
목숨은 부지해야겠다 싶어 시도한 탈궁은 까칠한 별감나리에게 발각되어
완벽한 실패로 끝났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별감나리가 바로.....악연 중의 악연,
정도령의 그 남자, 화초서생이라는 사실이다!
사색이 된 라온과 잘 걸렸다는 표정으로 그런 라온을 바라보는 영.
라온의 파란만장한 궁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얼마 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궁 안에 울려 퍼졌다.
김조순의 바람대로 대군의 탄생이다.
하지만 궁에는 중전 말고도 몸을 푼 산모가 하나 더 있었으니,
아무도 모르게 열 달 동안 별감의 씨를 품어 온 궁녀 금복이었다.

한 순간 천한 기생의 딸에서 권세가 김조순의 막내딸로
또 일국의 왕비로 신분이 급상승 했지만,
중전 김씨에겐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다.
김조순이 쓸모없다 여기는 순간, 지금 누리는 이 호사도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말 것 이란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여 제발..제발..그렇게 바랐건만, 무녀는 뱃속의 아이가 공주라고 했고,
같은 날, 하늘의 계시처럼 애를 뱀 궁녀가 있다는 고변도 함께 찾아왔다.
중전은 만약을 위해 금복을 살려두었다. 뿐인가.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숨겨두고 잘 먹이고 잘 재웠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낳은 사내아이와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다.

대군 탄생을 축하하는 손님들로 김조순 집 문턱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다.
그 모습을 보고 있기가 힘겨워 기방으로 간 윤성은
요란 벽적한 기생들의 환대가 피곤해 다시 궁으로 발길을 옮겼다.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데 속은 늘 헛헛한 그였다.

고작 10살 차이였지만 막내 고모는 윤성에게 있어 부모 대신이었고,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그에게겐 고모의 죽음을 맘껏 슬퍼할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김조순은 딸을 잃은 아픔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기생의 피인 김씨를 데려다 중전 후보로 거론되던 자리에 기어이 밀어 넣었고,

현재 대군의 탄생을 제일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윤성은.....그 끔찍한 일에 여전히 침묵으로 동참 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 아래 서서, 아...지루한 인생...벼락이나 떨어져라.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윤성. 순간 우지끈 나무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툭 떨어지는 누군가를 보았고, 본능적으로 두 팔을 내밀어 받았다.

그러나 결국 그 무게와 속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언덕 아래로 함께 굴러 떨어진다.

바닥에 누워있는 자를 확인하고 윤성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받는 순간 여자의 몸이란 걸 알았는데, 내관이라?

하지만 곧 그가, 아니 그녀가 청나라에서 돌아오던 날 운종가에서 보았던,

남장을 한 용모파기 수배자임을 알아보고 씨익 웃었다.

그리고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중얼거렸다.

“정말 떨어졌네?..... 벼락!”

성내관에게 찍혀 궤심죄로 자선당 야간보초를 명받았을 때,

라운은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귀신이 나온다는 곳이라 두렵긴 했으나,

여자인 몸으로 다른 내관들과 섞여 지내는 것보단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

호기로운 마음으로 방문을 연 라운은 방구석에 머리를 풀고 앉은,

기골이 장대한 귀신을 목도 하고 그대로 기절을 해버린다.

놀란 것은 병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올 일 없는 버려진 공간에서 여느 때처럼 쉬고 있을 뿐이었는데,

웬 허여멀건 내시 하나가 불쑥 찾아와 정신을 잃다니.

더 심각한 것은 삼놈이라는 이 작자, 앞으로 쪽 자선당에 머무른단다.

자선당이 어떤 곳인가.

영이 김조순 일파의 시선을 피해 무예를 닦고,

세자라는 짐을 내려놓은 채 무방비 상태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곳,

하여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헌데 병연의 걱정과 달리, 영은 별로 불편한 기색이 없다.
어차피 자신을 할 일없는 별감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으니 상관없다며....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모른 채,
격이 없이 웃고, 뒤통수 쳐가며 싸우는 편안한 사이가 됐다.
가끔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때론 서로의 어깨에 기대 코를 골아가며
자선당에서의 우정과 추억은 점차 쌓여 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4명의 호위내관들에게 눈이 가려지고 결박당해
궁궐 깊숙한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라온.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명온 공주였다.

“니가 이 나라의 공주를 능멸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공주마마를 뵈는 것도, 입에 올린 것도 지금이 처음인데,
무엇이 능멸이란 말입니까?”

명온의 서슬에 영문을 몰라 덜덜 떨고만 있던 라온은,
그제야 정도령의 연서의 상대가 명온 공주임을,
그간 갑작스레 뚝 끊어진 연서 때문에 공주가 심한 속앓이를 했음을 알게 된다.
수치심과 분노로 눈시울이 붉어진 명온이 결심한 듯,
호위내관들을 향해 무어라 입을 열려는 순간,
“세자저하 납시오!” 하는 커다란 외침이 들려온다.
쿵!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청색의 곤룡포를 떨쳐입고
위풍당당 지하 감옥으로 들어서는 세자.
내관과 궁녀, 라온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긴장하는데,

“공주를 희롱한 자가 이 놈이나? 뭐 하는가. 당장 칼을 뽑지 않고!”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세자의 목소리.
순식간에 호위내관들의 길고 번쩍이는 칼이 라온의 목을 향하자,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살려 달란 네 글자가 입 밖으로 꺼내지지 않았다.
하여 라온은 감히 함부로 눈을 맞춰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간절한 눈을 들어 세자를 한 번 올려다봤다.
제발.. 부디...소인을 불쌍히 여기시어.....그런데!
곧 더욱 더 절망적인 얼굴이 되고 말았으니....
그곳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운 얼굴을 한,

.....화초서생이 서 있었다.

명온 덕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라온은 슬금슬금 영을 피해 다녔다.
명온에게 한 짓이 참형감이면, 영에게 한 짓은 대체 무슨 수로
그 짓값을 치러야 한단 말인가.
통구덩이에 밀어 넣고, 이마가 벌겋도록 딱 밤을 때리고,
김치를 주욱주욱 찢어 영의 손가락에 얹어주었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저 눈에 안 띄고, 소리 죽여 조용히 지내는 게
살길이다 싶었다.

한 편 영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게, 다 저를 살리자는 작전이었던건만.
언뜻 듣기엔 라온에게 호통을 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사실 명온을 향한 겁박이었다.
니가 라온에게 해를 가하는 순간, 그간의 행실이 국왕께 낱알이 고해질 것이고,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경고.
때문에 겁을 잔뜩 먹은 공주 스스로 라온을 풀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뿐인데.
그 뜻을 알 리 없는 흥내관은 이제 나와 얼굴 한 번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또 한명의 동무를 잃었구나.
영은 적적하고, 무료하고, 또 허전했다.

그러나 자선당에 죽치고 있을 땐 코빼기도 볼 수 없던 라온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그곳은 영이 친어머니처럼 아끼고 따르는 숙의박씨의 처소였다.

라온은 성내관으로부터 숙의박씨의 글월비자 임무를 명받았다.
숙의박씨가 순조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했지만, 내막은 달랐다.
애초에 왕과 대면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어린중전의 시기 때문인데다, 얼마 전 글월비자 노릇을 하던 내관이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후로는 모두가 꺼리는 자리였다.
그러나 라온은 늘 시험에서 불통을 받는 열등생 소환이요,
얼마 전 모꼬지에서 입바른 말로 성내관의 비위를 상하게 한, 밋상 중의 밋상.
가라면 가야지 별 수가 없었다.

예상대로 라온은 중전 앞에 불려가 무릎이 꿇렸다.

숙의 박씨에게서 서신을 받으면 바로 대전이 아닌 중궁전으로 가져오라는 명이였다.
예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흔쾌히 명을 받잡고 나온 라온.
그러나 꾀를 내어, 순조에게 배달되는 상소문 사이에 끼워 전달한 것은 물론,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담긴 답신까지 받아오는데 성공한다.

그동안 아버지가, 어리고 요사스러운 새 중전에 홀려,
눈멀고 귀먹었다 오해한 영이였다.
어릴 적부터 마음 의지했던 속 깊은 숙의박씨가 외면당하는 것이 마음 아파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는데.
세 식구의 마음에 다시 다리를 놓는 일, 그걸 라온이 해낸 것이다.

밝은 미소로 숙의박씨의 처소에서 나오던 라온은
귀신을 본 듯 다리가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화초서....아...아니.....화초저하!”
“뭐라?”
“아...아니, 세자저하!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아니..살려주시옵소서!”

횡설수설 우왕좌왕 하는 라온 곁에 있으니,
다시금 적막하던 영의 주위가 시끌시끌해진다.
피곤한 듯 손가락으로 잠시 귀를 막았다 떼는 영.
마음은 반가웠고, 자꾸 웃음이 빠져나올 것 같았지만, 주위의 궁녀와 내시들이
모두 ‘저 죄인을 어떻게 처단할까’ 긴장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영은 다시 표정을 가다듬어 화난 척,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고로 미운 죄인일수록, 가장 가까운 데에 두고 괴롭히라 했다.”

내관과 궁녀들, 그런 말이 있어? 뭔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고,
절망스런 표정의 라온,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아니..대체..누가 그런말을...”
그러자 스윽 몸을 숙여 바닥에 납작 엎드린 라온의 귀에 속삭이는 영.
“누구긴? 나다. 이놈아!”
그리고 다시 굳은 얼굴로 소리쳤다.

“여봐라! 저 놈을 내일부터 동궁전으로 들게 하라!”

한참을 신음하며 뒤척이다,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잠에서 깬 순조.
또 같은 악몽이다. 홍경래! 그자에게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는 꿈.

홍경래의 난이 지나간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건만,
백성들은 아직도 그를 그리워한다. 때문에 순조는 늘 생각해왔다.
홍경래가 다시 살아 돌아와 왕인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기를,
백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도적떼의 출현이 왠지 불안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라의 우환을 핑계로,
대신들의 조롱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자신의 율화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단 하나의 숙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는 불안함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은 순조로웠다.
40세 한창 나이인 순조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는데도,
대신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경사스러운 일이라 기뻐했다.
또 영이 명을 받잡겠다 말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감축 드린다며 웃었다.
순조든 영이든 오십보백보라고, 이 나라의 왕과 왕세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치욕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영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는 순조.

“난 믿는다. 넌 나와는 다른 왕이 되리란 걸.”
“만약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면 그땐,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것이다. 결국 그 믿음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대리청정을 시작한 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각 도에 공문을 보내,
전국의 내로라하는 기생들을 장악원에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루 종일 붙어 앉아
그녀들이 부르는 노래와 춤에 잔소리를 해댔다.
누가 봐도 한량이 따로 없어, 껌에는 날라리 세자가 연회 준비를 핑계로
여색에 빠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세자의 행실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대신들의 쓴 소리에도
영은 꿈쩍 하지 않았다.

예조 참정인 윤성은 근무처인 장악원을 장악한 수십명의 기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조부인 김조순 덕분에 사이가 멀어지긴 했으나 어린 시절
누구보다 친했던 영의, 180도 달라진 지금의 모습은 윤성으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세자인 그의 명으로 기녀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의상과 무대 등
연회를 위한 준비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도 사실 윤성은, 좋았다.
라온이 연회준비를 돕고자 차출된 내시 무리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그만 몸을 설새없이 움직이며 뛰어다니고, 안무를 기록하고, 기녀들을 챙기는
라온을 보고 있으면 웬일인지 미소가 절로 피어났다.
하여 몰래 무거운 짐도 나눠 들어주고, 슬쩍 달달한 간식거리도 건네주고,
가끔 녀두리 같은 고민을 뱉으면 또 한없이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주는 라온과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윤성이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의 눈은 그다지 곱지가 못했으니....
영은, 아무리 곱상하기가 기생 뺨 치지만, 사내인 라온을 마치 여인네인양
대하는 윤성의 행동과 눈빛이 영 거슬린다.
윤성을 향해 해사하게 웃는 라온도 못마땅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팬스레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으려 멀리 심부름을 보내기도 하고
괜한 짜증을 내기도 했다.

무사히 예행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순조의 사순 잔치가 열리는 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진연의 하이лай트를 앞두고 독무를 맡은 여령 애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영의 속내를 어느 정도 간파한 김조순의 계략인 것이다.
초조하게 시간은 다가오고, 영이 특별히 공을 들여 준비한 순서가
망쳐버릴 위기에 처한 그 순간, 윤성은 조부 김조순의 짓임을 눈치 채고 애심을
찾아 달려가고, 남아 있는 라온은 망설임 없이 사라진 애심의 옷을 집어 들었다.

춤과 노래라면 한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정체가 탄로 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한데.
라온은 신하된 도리인지 뭘지 알 수 없으나,
영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자신을 깨닫고 놀란다.

그 시각, 낭패감에 굳어 있던 영의 눈에,
무대로 사뿐 올라서서 유려하게 춤을 추기 시작하는 여령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 가려져 있으나 그동안 지켜보았던 춤사위를 떠올렸을 때
분명 애심은 아니었다. 그렇게 불시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은 마치 새처럼,
무대 위를 날아다니고, 그 모습이 영의 눈에 아로새겨진다.

춤과 악사들의 곡조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영은 보란 듯이 신하들을 하나씩 불러내어 자리한 순조 앞에 세운다.
법과 예로 무장한 연회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다.
결국 순조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충성을 맹세하며,
술을 올리는 김조순과 대신들.
국왕에 대한 당연한 예이거늘, 왕 위의 왕이라 오만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들의 얼굴이 열패감으로 굳어졌다.

얼굴을 가린 라온이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영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사라진 기녀를 찾아 장악원 여령들의 숙소를 뒤지기 시작하는데,
발각되기 직전 긴박한 순간,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안아 꺾어진 담장 아래 담쟁이 넝쿨이 수북한 공간으로
몸을 숨겨준다. 두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영을 바라보며
그제야 제 허리를 감싸 안은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는 라온. 바로 윤성이었다.

애심을 겨우 찾아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윤성은 마치 한 마리의 나비처럼,
한 송이 꽃잎처럼 그렇게 독무를 추는 여령이 라온임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자신이 애심을 찾아 뛰었던 것은 영을 위해서도, 예조 참정으로서의 역할 때문도
아닌, 애심이 없어지는 순간 낭패감으로 젖어오던 라온의 얼굴 때문이었음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여인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낫설면서도
행복한 윤성이었다.

여인 차림으로 윤성을 맞닥뜨려 당황한 라온에게 장난스런 미소를
지어 보이는 윤성. 내가 빚진 것은 안 갚아도, 남이 내게 진 빚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 만다며,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소원을 하나 들어 달라 청한다.

영이 준비한 충성맹세는 김조순에게 보내는 도전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은 정체를 숨기는 일 없이, 당신과 그 가문을 향해 칼을 휘두르겠다는.
김조순 역시 영의 본 모습이 무언지 비로소 똑똑히 알았다.
노련한 정치 9단과 막 날개를 펼치는 젊은 군주의
피 말리는 정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 팽팽한 기싸움으로 편전은 연일 불꽃이 튀고 있었다.

그 전쟁을 끝내고 동궁전에 들면 영에게는 또 다른 악몽이 펼쳐졌으니,

바로 독무 여령의 얼굴이 자꾸만 라온에게 겹쳐 보이는 것 이었다!

연회 당시, 무대를 내려가는 여령을 끝까지 눈으로 좇았던 영.
그때 여령의 입을 가리고 있던 천의 한쪽이 툭 끊어지면서 잠시 보인 얼굴에
영은 크게 놀랐었다. 설마 라온...?!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라온이 사내라는 건 차치하고 영이 새로이 만든 복잡한 안무를,
연습 한번 없이 그토록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여령을 놓쳤던 그 날, 혹시나 하는 맘에 찾아보니,
홍내관은 숙의 박씨의 처소인 집복헌 정원에 거름을 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말뚝이 묻은 얼굴을 썩 닦으며 왜 그러십니까 저하? 묻는 라온에게 그저
아니다.. 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던 영.

헌데 어째서, 왜, 뭇 땀에, 자꾸만 라온의 얼굴만 보면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아무리 책을 뒤져도 이 같은 증상에 대한 답은 없었다.
어의를 불렀다가 결국 말 못하고 돌려보내기를 수차례...
영은 안팎으로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다.

가배(추석)를 하루 앞둔 날.
다짜고짜 윤성에게 끌려 포목점으로 간 라온은
정신을 차려보니 붉은 치마에 머리를 내려 땀은 채 면경 앞에 서 있었다.
감나무에서 한 번, 독무 사건 때 또 한 번,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다
비밀까지 공유한 사이가 아니냐는 윤성의 성화에 함께 외출을 한 것뿐인데...
라온이 망설이다 포목점에 딸린 방문을 열고 나오자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싱글생글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멍칫 한다.

“내관이 이리 고운 건, 반칙 아니요?”

떨리는 마음을 숨겨보려 농을 건네 보아도, 쿵! 쿵!
그의 가슴에서 울리는 박동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첨엔 사내 얼굴이 기생 뺨치게 생겨서,
두 번째엔, 귀여운 꾀돌이 그 능청맞은 성격에 끌려서,
그리고 그 다음엔, 라온이 가진 사람에 대한 관심과 깊은 애정,
속 깊은 마음씀씀이가 느껴져 누구든 그녀를 세 번 이상 만나면

아끼지 않을 도리가 없게 만드는 문제적 여인.

“홍내관은 참.....문제가 많은 여인이요.”

“제가 무엇이 문제란 말이옵니까?”

기분이 상한 듯 따지고 드는 라온을 보며, 윤성은 그저 웃는다.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보긴 난생 처음이다.

근심에 차있던 라온도, 윤성이 참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 느껴져

비로소 안심이 되고, 두 사람은 운종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한 편, 명절을 앞두고 잠행을 나갔던 영은

그 복잡한 거리에서 뜻밖의 사람을 보게 된다.

장옷을 뒤집어쓰는 찰나이긴 했지만 틀림없었다.

그렇게도 찾아 헤맸던 묘령의 여인, 독무 여령 이었다!

영은 앞 뒤 생각할 것 없이 여령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풍등을 쥐어 주는 한 사내.

여령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는, 윤성이었다.

걸음을 멈춘 영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시 추스르는 사이,

인파 속으로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만 두 사람.

서둘러 영의 곁에 와 선 병연은 영문을 모른 채,

낙심한 영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겉로 돌아온 영에게 세자빈 간택 소식이 전해졌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으니 가례도감을 설치하란 지엄한 명이였다.

이런 저런 핑계로 혼례를 미루던 영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어

심난한 마음에 서책 하나를 끼고 의두합(영의 독서처)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영을 기다리고 있던 여인 하나가 조용히 인사를 한다.

언젠가 순조가 말했던 조만영의 여식 조하연이었다.

김조순이 윤성과 하연을 혼인 시켜 풍양 조씨와 손잡으려는 계획을 알고

순조는 서둘러 조만영을 불러 영과 하연의 혼례를 추진했다.

하연은 담담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사사로이 부부의 정을 생각하실 때가 아닌 줄로 아뢰오.. 겁박 아닌 겁박을 했다.

혼인을 아니 하실 게 아니라면, 아마도 최선의 선택이 소녀의 가문일 테니

저를 세자빈으로 삼는 데 반대 하지 말아 달라고.
부정도 긍정도 않는 영을 두고 하연은 먼저 정원을 빠져 나왔다.
담대하고 의젓하기가 대장부 못지않다는 말을 듣는 하연이지만,
영과의 독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엔 다리가 풀렸다.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영의 눈빛이 계속 뒤따라오는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체 무엇이 겁도 없이, 나를 이 곳까지 오게 했는지 자문해 보았지만,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동궁전 영의 처소를 청소하는 라온은 끈질기게 따라붙는 어떤 눈동자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물론 그 눈의 주인공은 화초저하시다.
보는 걸로 모자라 갑자기 다가온 영은 손바닥으로 라온의 입을 가려보고,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머리에 씌워 보는 등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했다.
기어이 쥐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원망스레 영을 올려다보는 라온.
영 역시 그런 라온의 눈을 빤히 들여다본다.

궐 밖에서 윤성과 함께 있는 여령을 보았고,
입궐하자마자 당돌하게 정략결혼을 제안하는 하연을 만났다.
그런데 왜 그 때마다 제일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엉뚱하게도
홍내관이란 말인가!!영은 고개를 저었다.
세자인 자신에게도 라온에게도 깊은 상처가 될 위험한 마음이었다.

영은 한껏 부릅뜬 눈으로 라온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기 제대로 못 닦아? 얼룩 안 보이느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삼일 치 감봉의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뼈죽거리며 다시 걸레질을 하는 라온의 얼굴이 귀여워, 곧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다. 조하연과 혼례를 올리기로.

궐 안의 소문은 빨랐다. 어느 새 라온이 머물고 있는 자선당까지
세자빈 간택 소식이 전해 졌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상하게 가슴에 뻥하고 구멍이 난 것 같다.
라온은 아무렇지 않은 척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마당에 어제 뽑다 만 잡초를 마저 뽑았다.
그러다 역센 풀이 걸렸는지 손에 생채기가 났다.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막 들어선 병연이 놀라서 다가와 지혈을 해준다.

그런데 그만 난데없이 눈물이 솟아 병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미안합니다, 김형. 상처가 꽤 아파서 그러니...
잠시만 이렇게 있게 해주십시오. “

라온의 어깨를 도닥여 주려던 병연이 짧은 망설임 끝에 그냥 팔을 내렸다.
그리곤 어정쩡한 자세를 견디며 라온의 눈물이 그칠 때를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기근과 가뭄이 계속 되었다. 백성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그에 따른 지방 관아의 수탈 역시 더욱 더 심해졌다.
과도한 세금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신분을 버리고 유랑을 하다
도적떼가 되는 백성들도 많았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시대였다.

지방과 도성 가릴 것 없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관아와 세도가의 곡식 창고를 통째로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떼들도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목격한 자들에 의하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모두 똑같은 탈을 쓰고 있었으며,
범행 장소에 같은 표식을 남긴다 했다.
거대한 하나의 조직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조정은 연일 그 탈을 쓴 도적떼를 잡아들이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
김조순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영을 공격 해왔다.
하지만 영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각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세도가의 부정부패 실태를 조사하여 파직으로 응수하는 것은 물론
단서들을 모아 도적떼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조직명은 백운회.
죽은 홍경래의 정신을 이어 받아, 전국 각지에 흩어져 활동하는 의적 단체.
차라리 그저 물욕에 눈이 멀어 살육을 일삼는, 무뢰한들이라면 속이 편할 것을.
영은 분명 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인 줄 알면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은 편전에 둘러앉아 탁상공론이나 일삼으며
세금을 축내는 저들보다 100배 낫군.....’ 이란 생각이 들어 씁쓸해졌다.
하지만 질서를 어지럽혀 나라에 혼란을 가져온 죄를 반드시 찾아내어 물어야 한다.
더군다나 궁 안에도 백운회의 간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마당에
순조와 자신, 그 누구의 목숨도 안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병연의 마음은 괴롭다.

액정서 소속 별감 중 백운회의 간자가 숨어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영은 은밀하게 조사를 명했다. 그건 아주 쉬운 지시였다.

그 간자가 바로 나니까...

영이 가능한 오랫동안, 아니면 영영 자신을 찾지 못하길 바랐다.

그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무로, 위험한 순간 제일 먼저 그를 지켜야 하는

호위무사로 조금만 더 그의 곁에 머물고 싶었다.

하여 병연의 정체가 탄로 나는 날, 영을 배신해야 하는 그 순간이

가능하면 아주 천천히 찾아와주길 그토록 바랐는데....

병연은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아무 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장난스럽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영의 천진한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였다.

혼례가 다가오고, 영은 자꾸만 라온에게 뻗어가는 불온한 마음을 접어보려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었다.

영의 진심을 알 리 없는 라온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들어 정확히 선을 그어, 세자와 내관으로서만 자신을 대하는

영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당연한 일에 힘겨워하는 자신이 우스워, 더 많이 웃고 더 씩씩하게 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눈물이 나는 날만 더 늘어가고 있었는데.

능행을 나간 왕의 행렬이 괴한의 습격을 받아,

영과 라온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 고립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윤성이 미친 듯이 둘을 찾아 헤매는 사이

영은 라온을 마음 깊이 연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어렵사리 고백을 하지만, 마침 세자를 발견하고 다가오는 병사들로 인해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채 헤어진다.

그 사이 홀로 남은 라온을 부축해 데리고 가는 윤성.

어느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병연이 말을 몰아 몰래 궐을 빠져 나간다.

백운회의 본진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상선 한상익.

김조순의 사주를 받고 능행 때 왕을 공격한 무리로 인해,

백운희와 영 김조순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가운데
한상익에게서 홍경래의 여식을 찾았으며 그 아이를 지켜줄 것을 부탁받고
큰 충격에 빠지는 병연.

한 편, 능행 때 여자임이 발각될 뻔 한 라온을
더는 이대로 위험한 궁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윤성은
두 사람이 처음 보았던 나무 아래에서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고,
여인으로 내게 와, 내 사람이 되어 줄 수 없겠느냐 고백을 준비한다.
라온을 위해 권력도, 재력도, 자신의 신분도 모든 걸 버릴 각오가 된 윤성은
두근대는 심정으로 라온을 기다린다.

그 시각, 영은 미친 듯이 자선당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홍라온이 여인이라니! 분노와 기쁨이 마구 뒤섞여 심장이 폭발해 버릴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선당에서 영의 진심어린 고백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한 라온은 궁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엇갈리는 네 사람의 운명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더 무서운 진실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려고 하는데...